

자동화된 지식의 한계 안에서의 대학

The University Within the Limits of Automated Knowledge

육후이(Yuk Hui)¹

e-flux journal #161([원문링크](#)), 2026년 3월

번역: claude 감수/해제: 허대찬

이번에 번역 소개하는 「자동화된 지식의 한계 안에서의 대학(The University Within the Limits of Automated Knowledge)」은 e-flux journal 제161호(2026년 3월)에 실린 글이다. 오늘날 기술철학의 대표 철학자 육후이는 이 글에서 대학을 산업적 의제에 맞춰 재설계하려는

¹ 홍콩 출신의 철학자 육후이는 홍콩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프랑스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 아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학적 배경과 대륙철학적 훈련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이력은 그의 사유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후 독일 뤼네부르크 로이파나 대학교에서 기술철학 분야 교수자격(Habilitation)을 취득했으며, 현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홍콩시립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그가 제안한 핵심 개념인 '우주기술론(cosmotronics)'은 기술을 서구 근대성이 산출한 보편적이고 단일한 것으로 전제하는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기술은 언제나 특정한 우주론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 질서의 통합 속에서 작동해왔으며, 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기술문명의 위기를 돌파할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육후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식론을 통해 기술을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기술다양성(technodiversity)'의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주요 저작으로는 디지털 존재론을 다룬 *On the Existence of Digital Objects*(2016, 한국어판: *디지털적 대상의 존재에 대하여*, 새물결, 2021), 중국 기술사상을 통해 우주기술론을 전개한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in China*(2016), 사이버네틱스의 철학적 계보학인 *Recursivity and Contingency*(2019),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재구성한 *Art and Cosmotronics*(2021), 행성적 사유를 본격화한 *Machine and Sovereignty*(2024), 그리고 AI 이후의 칸트 철학을 논하는 *Kant Machine*(2026)이 있다. 이 저작들은 십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그는 오늘날 기술철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흐름에 맞서, 대학의 근본적 기능인 지식과 이성이 논쟁되고, 개인이 집단적 학습과 토론, 종합을 통해 정신의 삶에 참여하는 장소를 환기한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이성의 한계 안에서 지식의 조건을 물었던 것처럼, 육후이는 자동화된 지식, 즉 AI와 기계학습이 생산하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날의 기계학습 모델이 포스트모던 담론에서 영향력 있었던 '저자의 죽음' 개념을 급진화한다는 그의 진단이다. 한때 주권적 천재로 신, 아버지, 예술가, 왕의 죽음이 해방적으로 보였다면, 그 논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지적 역능까지 포섭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 시몽동의 개체화 이론, 그리고 스티글레르의 기술 비평을 경유하면서, AI 시대에 지식이란 무엇이며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수렴한다.

현대미술, 미디어아트, 디자인,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이 글은 단순한 기술철학 텍스트가 아니다. 자동화된 지식이 리서치, 기획, 창작, 비평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순간,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은 디자인 교육, 현대미술, 예술과 기술의 융합 현장 어디서든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육후이가 대학이라는 제도를 경유해 묻는 것은, 결국 자동화 앞에서 사유와 판단의 자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다.

1. 반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제 우리는 생성형 AI가 곧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식의 미래에 관한 질문들을 제기해왔으며, 이는 20세기의 다양한 사상가들로 하여금 저자의 죽음을 논하게 만든 것과 유사한 질문들이다. 생성형 AI를 고려하여 오늘날 다시 이 실타래가 주워지고 있다. 미셸 푸코가 저자를 제도적·사회적 구성물로 보았고, 롤랑 바르트가 의미에 대한 권위의 종언을 선포한 반면,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로봇공학이 고전적 저자성에 제기할 주요한 도전을 이미 1970년대에 명확히 식별한 것은 장-프랑수아 리오타르였다.

리오타르의 저명한 1979년 저서 『포스트모던의 조건: 지식에 대한 보고서(La condition postmoderne: rapport sur le savoir)』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나리오를 묘사했다. 컴퓨터가 교정 작업에서부터 의료 진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법을 학습함에 따라, 지식 생산에 대한 인간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다.[주1] 더 이상 인간은 지식의 생산자이자 주체가 아니다. 포스트모던의 인식 체계는 근대적 주체가 지식 체계로부터 정확히 제거하고자 했던 바로 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의한 방향 상실로 특징지어졌다. 실제로 리오타르의 표적 중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무질서한 파리보다 암스테르담의 체계적 격자 구조를 선호했던 데카르트다. 데카르트적 주체는 명석함과 판명함을 보증하는 절대적 토대를 추구하는 반면, 포스트모던적 주체는 더 이상 인간이기조차 하지 않다. 달리 말해, 반인간주의적 도발을 수반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포스트휴먼 시대의 전망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주2]

『포스트모던의 조건』의 첫 페이지들은 이미 이후 50년간 일어날 일을 포착하고 있는 듯하며,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을 기술에 대해 심오한 것을 말할 줄 모르는, 단지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논리로만 간주하는 것이 오류였음을 보여준다. 리오타르의 책이 알랭 망크(Alain Minc)와 시몽 노라(Simon Nora)가 프랑스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오타르의 저명한 저작보다 1년 앞서 출판된 『사회의 정보화(L'informatisation de la société)』²는 오늘날의 디지털 주권 및 국가 기술 전략에 관한 논의를 예견했다.[주3]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동일한 시나리오와 마주하지만 훨씬 더 큰 강도와 긴박함을 안고 있다: 시민적 응용에서 군사적 응용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전산화는 급속히 가속되고 있다. 기술적 권력은 끊임없는 최적화, 총동원, 최대 회복력을 요구하는 인프라의 견고성과 효율성에 반영된다. 글로벌 경쟁은 이제 마이크로칩, 희토류 광물,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들은 다시 슈미트적 주권 개념³을 재발명한다: 주권자란 자기 보존을 위해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예외 상태, 즉 주권자의 현현(顯現)은 이주·지식·기술의 흐름을 차단하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세계화를 특징지어온 프로토콜과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함으로써 '제도화'되어왔다.

² 이 보고서에서는 컴퓨터화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권력구조, 고용, 문화, 주권을 재편할 것이라 진단했다. 특히 IBM으로 대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 독점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게 담겨있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주권 확보, 산업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미니텔(Minitel)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즉 이 문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술을 국가가 관리해야한다 라는 국가 전략 문서이다.

³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는 주권자에 대해 다음 정의를 내렸다.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이 정의는 당대의 자유주의적 법 이론인 규범주의를 반대하며 선언한 주장이다. 당시에는 국가를 법과 규범의 체계로 보았다.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며 이 모든 것이 규칙과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슈미트는 이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법 체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작동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치적 순간은 정상 상황이 아닌 예외상황, 즉 전쟁, 내란, 위기 등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벌어진다. 이 때 법은 답을 줄 수 없으며 그렇기에 무엇이 예외이고 그 예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자라고 정리했다. 즉 슈미트에게 주권은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바깥, 법이 멈추는 지점에서 작동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 법을 정지시키고 예외를 선포할 수 있는자가 주권자라 칭한다.

이 관점에 기반한 또 하나의 핵심개념이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그는 정치의 본질이 합의나 토론이 아닌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 구분이 실존적 차원, 즉 물리적 실상의 가능성이 현실적일때를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지배적인 인상은, 이른바 주권적 AI(sovereign AI) 하에서 가까운 미래에 기계가 인간 지능을 능가하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기계는 동정심, 탐욕, 허영,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감정이 야기하는 오류로부터 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도전은 첫째로, 지식의 생산과 확산에 있어 대학의 우위를 의문에 부친다. 만약 지식 생산이 자동화될 수 있고, 교육이 많은 교수보다 더 개인화되고 인내심 있고 유익한 생성형 AI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면, 대학은 기계를 유지 관리하는 기술 부서로 축소될 수 있으며, 아마도 부차적으로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인간 과업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이미 완벽하게 정확하고 정밀하지 않은 지식도 처리할 수 있다. (인식론적 한계—일상적으로 '환각(hallucination)'이라 불리는—를 지닌 AI는 곧바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수도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우리는 인간 중심을 탈중심화하고 덜 인간 중심적인 지식 형태를 도입하려는 이론적 노력들을 읽어왔다—행위자-네트워크 이론⁴에서 다종(多種) 관점⁵,

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 미셸 칼롱(Michel Callon), 존 로(John Law) 등이 발전시킨 사회학/과학기술학(STS) 이론이다. ANT의 핵심 주장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인간 행위자만 보면 안 된다, 비인간 행위자(기술, 사물, 자연물, 텍스트 등)도 동등한 행위능력(agency)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작용한다 등이다. 라투르가 즐겨 든 예시가 문을 달는 행위에서 도어클로저(자동 문닫힘 장치)는 인간 문지기와 동등한 '행위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ANT는 반인간주의인가? 엄밀하게 말하면 ANT는 스스로를 바로 위에서 서술할 '반인간주의'라고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는다. 라투르 자신은 '우리는 인간주의도 반인간주의도 아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 자체를 넘어서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로 보면, ANT는 확실히 반인간주의적 방향으로 작동한다. 인간을 행위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특권적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비인간과 동등한 평면 위에 놓기 때문이다. 이걸 라투르는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육후이가 ANT를 '인간을 탈중심화하려는 이론적 노력'의 목록에 넣은 것은 타당하다.

⁵ 다종 관점(multispecies perspectives)은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 안나 칭(Anna Tsing), 에두아르도 비베이루스 지 카스트루(Eduardo Viveiros de Castro) 등의 작업에서 발전한 흐름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미생물, 균류 등 다양한 종(species)이 서로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해러웨이의 '반려종(companion species)' 개념이나 칭의 '버섯과 자본주의의 종말'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반인간형태주의와 직결된다. 이들은 다른 종을 인간의 범주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시도이다.

반상관주의⁶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반인간주의⁷와 반인간형태주의⁸에 매료되었던 학술적 군중은 인공지능의 산업 정치에 의해 역설적으로 혼란에 빠진 듯하다. 사실, 근대 사회의 위기가 대체로 모든 것을 인간의 의지에 따라 질서 짓고자 하는 인간주의적·인간 중심적 욕망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믿는 반인간주의 또는 반인간중심주의에게 함정이 열려버린

⁶ 반상관주의(anti-correlationism)는 캄탱 메이야수(Quentin Meillassoux)가 2006년 『유한성 이후(Après la finitude)』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상관주의(correlationism)란 칸트 이후 서양 철학의 지배적 경향, 즉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유와 존재의 상관관계뿐이며, 사유 없는 존재 자체(thing-in-itself)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이야수는 이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사변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변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이라는 흐름으로 발전했다.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의 '객체지향 존재론(OOO)'도 이 계보에 있다. 이는 반인간주의의 존재론적 급진화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주체를 탈중심화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사유 자체를 존재론의 중심에서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⁷ 반인간주의(anti-humanism)는 20세기 프랑스 철학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개된 사상적 흐름이다. 핵심은 '인간'이라는 범주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다. 서양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 이래로 '인간 주체'를 모든 것의 중심에 놓았다. 생각하는 나(cogito), 합리적 주체, 자율적 행위자. 반인간주의는 이 '인간'이라는 범주가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제도적·언어적 조건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마르크스를 반인간주의적으로 재독해하면서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구조'라고 주장했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말과 사물』에서 그 유명한 선언, "인간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처럼 곧 지워질 것이다."을 밝혔다. 이견 인간이 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인식론적 범주가 근대의 특수한 발명품이며 그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다 라고 해석된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 질 들뢰즈의 탈주체화 철학도 넓은 의미에서 이 반인간주의 흐름에 속한다. 반인간주의는 '인간을 싫어한다'거나 '인간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 주체'라는 특정한 철학적 구성물을 탈중심화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의미에 대한 저자의 권위를 해체하는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도 이 흐름 안에 있다.

⁸ 반인간형태주의(anti-anthropomorphism)는 반인간주의보다 더 구체적인 표적을 가지고 있다. Anthropomorphism, 즉 인간형태주의 또는 의인화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인간적 속성을 투사하는 것이다. 가장 일상적인 예는 '내 고양이가 나를 판단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같은 것이다.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더 깊은 문제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인간의 형태(morph)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우리가 자연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동물을 '감정'이 있는 것으로, 기계를 '지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주를 비인간 존재에게 투사하는 인간형태주의이다. 반인간형태주의는 이 투사를 거부하고, 비인간 존재를 인간의 범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동물을 인간처럼 다루자'가 아니라 '동물을 동물 자체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자', '기계를 인간 지능의 모방으로 보지 말고 기계 고유의 작동 방식으로 이해하자'이다.

것이다. 표면적으로, 지식의 저자성/권위의 이동은 근대 서양 철학의 지나치게 인간적인 측면들에 대한 치유제로 보인다. 그러나 반인간주의가 열어놓은 공터(clearing)는 인간을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 보는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을 여타 기계들 사이의 한 대의 컴퓨터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계산주의(computationalism)에 의해 너무나 빠르게 점령된다. 그러나 인간주의에 대한 트랜스휴머니즘적·계산주의적 비판은 통제와 지배를 갈망하는 잠재적 인간주의를 은폐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현재의 과대광고(hype)는 지능을 계산적인 것으로, 생명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보는 지난 세기의 담론을 부활시켰다—마치 지난 세기의 비판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물론 이것이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만약 계산주의가 반인간주의를 전유하여 그 후계자로 자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인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이 철학사에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기술적 존재로 인식한 소수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기술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한다.[주4] 인간은 기술에 대한 반정립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화(hominization)의 과정은 기관학적 투쟁(organological struggle)을 수반한다—즉, 도구를 인간 신체의 작동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다. 이것이 베르그손이 '창조적 진화'라고 부른 것이며, 이는 무기적(無機的) 자연의 정교화와 인공 기관의 발명을 척추동물 발달의 필수적 경향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진화를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 경쟁의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과 대비된다. 베르그손에게 도구 제작은 본능(instinct)과 구별되어야 하는 지능⁹(intelligence)에 속한다. 새들은 둥지를 짓되,

⁹ '지능(intelligence)'은 통상 IQ, 인공지능 등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본능'은 동물적·무의식적 반응을 뜻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저자는 베르그손의 담론을 연결한다. 베르그손에게 intelligence와 instinct는 생명의 진화에서 갈라진 두 경향이다. 지능(intelligence)은 무기적 물질을 가공하여 도구를 만드는 능력이고, 본능(instinct)은 유기적 도구(신체 기관 자체)를 직접 사용하는 능력이다. 새가 둥지를 짓는 것은 본능이고, 인간이 도구를 발명하는 것은 지능이다. 즉 여기에서 '지능'은 IQ적 의미가 아니라 '물질을 가공하여 인공 기관을 만드는 존재론적 능력'이며, AI의 'artificial intelligence'와도 다른 층위에 있다. 육후이는 이 구분을 통해 인간의 기술적 존재 방식이 학습과 교육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부모로부터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라 본능에 따라 짓는다. 반면 인간의 기관학적 투쟁은 학습 과정이며, 교육 과정이다.¹⁰

2. 기관(器官)들의 갈등

나는 기술 세계 및 정신¹¹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기관학적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오늘날 우리는 센서와 디지털 장치로 뒤덮인 환경에 살고 있으며, 이것들은 데이터를 포착하고 상호작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인터페이스의 기능, 데이터베이스 구조, 사전 정의된 규칙에 적응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¹⁰ 육후이는 글에서 이 모든 흐름, ANT, 다중 관점, 반상관주의가 "인간 중심을 탈중심화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고 정리한 다음, 역설적 함정을 지적한다. 이 반인간주의적·반인간형태주의적 사상가들이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특권을 해체했는데, 정작 AI라는 형태로 그 해체가 산업적으로 실현되니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이론적으로 주장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니 "잠깐,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데?"라고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육후이의 또 다른 날카로운 진단은 이 혼란이 생긴 근본 원인이 반인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이 기술을 충분히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투르가 비인간 행위자를 이야기했지만 기계 학습의 고유한 기술적 실재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고, 해러웨이가 반려종을 이야기했지만 알고리즘의 존재론적 지위는 충분히 탐구하지 않았고, 메야수가 사유 없는 실재를 이야기했지만 데이터와 계산의 특수성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계산주의와 트랜스휴머니즘이다. "반인간주의가 인간을 탈중심화했다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겠다, 기계로"라고 말하면서.

육후이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티글레르와 시몽동의 기술철학 전통을 끌어온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기술적 존재로 인식한 소수의 인물들'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인간을 탈중심화하되, 그것이 계산주의적 수탈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기관학적 투쟁, 즉 적응과 채택,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의 긴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대안이다.

¹¹ 일반적 의미의 정신은 일상적으로 '마음', '멘탈', '정신력' 또는 초자연적 의미의 '영혼/귀신'을 지칭한다. 또한 '정신 차려'처럼 주의력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글에서의 정신은 독일 관념론 전통의 Geist를 지칭한다. 즉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집합적 학습·토론·종합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고양시키는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의 Geist와 같은 계보이다. 육후이가 '정신의 삶(the life of the spirit)'이라 할 때, 이것은 개인의 내면 생활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지적·도덕적 형성(Bildung)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적응의 압력은 이 도구들을 우리 자신의 용도로 채택(adopt)하도록 돕는 전략의 필요성이라는 반대급부를 낳는다.

개인적이고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지닌 AI의 최근 발전은 계산주의에 새 생명을 부여하고, 세계를 변혁할 전망에 쉽게 도취되는 정치인과 전략가들을 매료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또한 산업주의의 패러다임을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는 시장 주도 민주주의의 명령들을 달래고 주권자에 복무하는 산업 독점을 강화하기 때문에 대체로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 이로부터 새로운 산업화의 물결과 지식의 미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도출된다:

- 1) 대학은 AI에 맞춰 재편되어야 하며, 일상적 행정뿐 아니라 교육학까지도 더 개인화된 AI 보조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2) 인문학은 경제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제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문학은 기술적 가속에 대한 저항을 대표한다.

첫 번째 관점은 교육 및 창작 직종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최근 AI의 도움으로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에 따르면 더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물리학, 즉 "물리학의 법칙, 마찰, 관성, 인과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다.[주5] 첫 번째 관점은 연구에도 적용된다; 크리스 앤더슨이 거의 20년 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숫자가 스스로 말한다."[주6] 지난 10년간 데이터 과학은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중 하나로 부상했다.

두 번째 관점은 반전통주의자로 시작하여 파시스트가 된 20세기 초 이탈리아 미래주의자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상기시킨다—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笑劇)으로. 학계에서뿐 아니라 러다이트 좌파를 비웃는 것이 유행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술적 가속에 비판적인 어떤 입장에

대한 혐오로 일반화되었다. 오늘날, 반인간주의의 아우라를 두른 가속주의자들은 확신에 차고 대담하다.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AI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비주의라는 비난의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에서, 전쟁과 파괴를 미학화(aestheticize)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허무주의적 충동이 확장될 조건이 무르익었다. AI 과대광고는 계산주의를 트랜스휴머니즘과 같은 산업 이데올로기로 확장시키는데, 차이가 있다면 트랜스휴머니즘은 소비주의의 연장인 반면 계산주의는 현대적 의사논리¹²(paralogism)라는 것이다. 우려스럽게도, 위에 열거된 두 관점은 정치인들이 교육과 직장 관리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술에 의한 대학의 변혁은 저자의 권위에 대한 기술적 도전과 학생 시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만큼이나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학을 산업적 의제에 맞춰 재편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영향에 기여하는 것이 대학의 근본적 기능—즉 지식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성(reason)이 논쟁되는(contested) 장소이자, 개인이 집합적 학습, 토론, 종합을 통해 정신의 삶에 참여하는 장소라는—에 비해 부차적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지식은 단지 취업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봉사하지 않는다(비록 많은 대학이 취업률을 졸업생 행복의 측정치로 간주하더라도). 오히려,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며, 그 목적은 관조와 행위 양자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신의 고양은 니체가 그의 저작 전반에 걸쳐 정교화한 바와 같이, 개인과 집단이 한때 견지했던 고매한 가치들의 평가절하인 허무주의에 의해 위협받는다. 나는 디지털 기술의 심오한 중요성이 계산주의,

¹²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등장하는 의사논리(Paralogismus)는 이성이 자기 한계를 넘어 부당한 추론을 행하는 특정한 오류를 뜻한다. 특히 '영혼의 의사논리'는 이성이 자아(cogito)를 실체화하여 영혼을 독립적 실체로 증명하려는 부당 추론이다. 육후이가 계산주의를 '현대적 의사논리'라 부를 때, 이것은 계산주의가 계산 능력을 부당하게 확장하여 지능, 의식, 생명 전체를 계산적인 것으로 실체화하는 칸트적 의미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트랜스휴머니즘, 또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기치 아래 모든 것을 계산으로 환원하는
목시론적 축소와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칸트, 특히 그의 후기 저작 『학부¹³들의 갈등(Der Streit der Fakultäten)』
(1798)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편의 에세이로 구성된 이 모음집에서,
칸트는 하위 학부인 철학부와 상위 학부인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사이의 갈등을 다루었다.
칸트는 이 세 분과를 검토했는데, 그가 '사업가들(Geschäftsleute)'이라 부르는 이 분야의
학자들이 마술사처럼 보일 수 있어서, 대중의 이성(즉 철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교리나 심지어 미신을 믿도록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문 유머를 보여주며, 칸트는
이렇게 쓴다:

*철학자들의 수다에 관해서라면, 나는 그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소. 학자 양반들이여,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요: 만약 내가 평생 건달이었다면, 어떻게 최후의 순간에
천국행 표를 구할 수 있겠소? 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여전히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소?
내 체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용해왔다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 수
있겠소? 분명 당신들이 공부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였을
것이요—상식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속인(당신들은 우리를 문외한이라
부르지만)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말이오.[주7]*

칸트는 여기서 철학이 철학이려면 어떤 유용성도 결여한 채 남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실제로 상위 학부들에 유용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유용성은 철학의 부차적 목적인 반면, 그러한 유용성은 상위 학부들의 일차적 목적이다. 이

¹³ 여기에서의 '학부'는 한국 대학의 '학부(學部)', 즉 학사과정 단위, 또는 '~학부'(예: 경영학부)라는 행정 편제를
즉시 연상하지만 그것과 다른 맥락을 지닌다. 칸트가 이야기한 학부(Fakultät)는 18세기 유럽 대학의 독립적 학문
분과 단위로 오늘날의 '단과대학(College/Faculty)'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학부와는 다르게
'위계'가 밀접하게 작동한다. 각 Fakultät은 고유한 제도적 권위, 인사권, 교육과정을 가진 자율 조직이었으며,
국가·교회와의 관계에 따라 위계가 결정되었다. 칸트의 '상위 학부(obere Fakultäten)'는 국가에 직접 봉사하는
신학·법학·의학이고, '하위 학부(untere Fakultät)'는 그런 직접적 유용성이 없지만 이성의 자율성을 담지하는
철학이다. 여기서 상위/하위는 학문적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제도적 권력의 위계이다.

쟁점들이 오늘날 트랜스휴머니즘의 수사학에서 어떻게 다시 등장하는지 보이는가?

특이점(singularity)은 가까이 왔고 불멸도 마찬가지다—AI 알약을 먹고 수업을 빠지면서도 우등으로 졸업하고 싶지 않은가? 좋은 식단과 운동에 노력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불멸하고 싶지 않은가? 모든 개인적·법적 문제를 AI 에이전트에 위임함으로써 해결하고 싶지 않은가? 칸트의 학부 갈등은 그 용어가 칸트 시대에는 없었음에도 소비주의의 근대적 형태를 가리킨다. 칸트의 도움을 빌어, 우리는 오늘날의 학부 갈등의 기술적 재연출(restaging)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핵심은 신앙(faith), 또는 믿음(belief)이다—AI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것이며, 사실들에 대한 이성의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비판 철학이 규범적이고 우연성에 취약한 경험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반면, AI는 확률과 사실(데이터)의 연합에 기초한다. 인공지능의 한계를 질문하는 대신,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공상과학에 의지하고 있다.[주8]

이성¹⁴에 대한 신앙¹⁵은 이성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첫째로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성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둘째로, 이성에 대한 신앙은 도덕적 진보, 즉 최고선(summum bonum)과 보편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이성은 미신과 상위 학부의

¹⁴ 일반적인 이성은 일상적으로 '합리성', '논리적 사고력', '이치에 맞음'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처럼 분별력의 동의어이다. 하지만 글에서 저자는 이성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칸트 철학에서의 Vernunft(이성)는 Verstand(오성/지성)와 구별되는 상위 인식 능력이다. 오성이 경험적 데이터를 규칙에 따라 정리하는 능력이라면, 이성은 경험을 초월하는 무조건적 이념(자유, 신, 영혼의 불멸)을 지향하는 능력이다. 육후이가 'faith in reason'이라 할 때, 이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가 아니라 '경험과 계산을 넘어서는 이성의 자율적·도덕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AI가 확률과 데이터 연합에 기초하는 것은 오성(Verstand) 수준이며, 칸트적 이성(Vernunft)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 논점이다.

¹⁵ 여기에서 신앙 역시 종교적 믿음, 또는 일상적으로 '맹신', '비합리적 확신'의 뉘앙스와는 다른 의미로 작동한다. 칸트에서 Glaube(신앙/믿음)는 이론적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실천 이성이 요청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뜻한다. 이것은 종교적 맹신(Aberglaube, 미신)의 정반대이다. 칸트의 '이성 신앙(Vernunftglaube)'은 자유·신·영혼의 불멸을 이론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나 도덕적 실천을 위해 상정해야 하는 것으로, 철저히 이성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육후이가 'faith in reason'이라 할 때, 이것은 '이성에 대한 맹목적 숭배'가 아니라 '이성이 자기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는 자기-신뢰'이다.

마술적 주문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며; 최고선을 지향함으로써 이성은 이론적·사변적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성은 실천 도덕 이성에 핵심적인 증명 불가능한 이성 이념들(불멸의 영혼, 자유, 신)을 인정한다. 이 인정은 이성 자체의 내부로부터만 오며,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성에 대한 신앙과 그 목적을 거부하는 것은 오직 허무주의로만 귀결될 수 있다.

이성에 대한 칸트의 신앙은, 진보에 대한 믿음이 서구의 지배를 향해 AI를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최근의 주장들과 대조된다. 이 관점은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Peter Thiel)과, 그의 동료 공동 창업자 알렉스 카프(Alex Karp)—괴테 대학교 프랑크푸르트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종종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상가들과 연관되는—에 의해 예시된다. 서구가 믿음을—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자유에 대한 믿음을—상실했다고 선포하면서, 틸과 카프는 근대 이래 상실된 진정한 진보를 복원하고 국민국가에 봉사하는 기술을 개발해야만 서구가 자체의 퇴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진보란 오직 지배를 의미하며, 서구 근대성이 인류의 항로를 결정했던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반면 칸트에게 진보란 오직 도덕적 진보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이성의 텔로스(telos)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구의 이름으로 국가 기술 의제를 민족주의적·파시스트적으로 전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반서구적이며, 반이성적이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칸트의 이성의 자동화 문제에 대한 관련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칸트의 분석을 AI의 영역으로 전위(轉位)시키려면, 먼저 현재 주로 LLM으로 대표되는 AI 고유의 추론 형태의 한계를 이해해야 하며; 그런 다음 AI를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이 한계를 초월해야 한다. 이성이 자유, 신, 불멸의 영혼에 대한 긍정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변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자신의 한계와 대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I는 도덕적 목적을 향해 진보하기 위해 확장되어야 한다.

3. 기계의 종언

디지털 가속을 고려하여, 오늘날 지식의 생산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우리는 계몽주의와 그 인간주의, 인간 주체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향한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그러나 계몽주의의 특정 고정관념을 거부한다고 해서 암흑 계몽(Dark Enlightenment)¹⁶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주9] 코로나 이후 세계의 끊임없는 격변은 1990년대의 꿈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요구한다. 만약 미래의 지식 생산이 실제로 AI에 위임된다면,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종류의 지식이 될 것이다. 그러한 기계의 접수는 우리가 질주하는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려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하려 해서는 안 되는 합리적 진화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이후에도, 만약 우리가 여전히 지식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삶의 지식—잘 사는 법과 함께 잘 사는 법에 대한 지식—이 될 것이다. 결국, 삶의 반대말은 죽음이 아니라 의미의 상실—공리주의적 목적을 넘어선 더 높은 목적의 상실—인 것이다.

삶의 지식에 대한 이 대화는, 근본적으로 인간발생(anthropogenesis)의 장기적 과정에 내재하는 기관학적 투쟁¹⁷인 정치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비판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기관학적 투쟁은 기술(즉, 발명과 도구 사용)을 전유하여 네겐트로피(negentropy)¹⁸를

¹⁶ 암흑계몽은 닉 랜드(Nick Land)가 제안한 신반동주의(neoreactionary) 사상이다.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계몽의 실패로 보고, 기업 군주제(CEO-왕), 기술적 가속, 인종적·인지적 위계를 옹호하는 극우 기술 철학이다. 팔란티어의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우파와 연결되어 이야기되고 있다. . [주9]에서 인용된 New Yorker 기사("Silicon Valley's Favorite Doomsaying Philosopher")가 바로 이 맥락이다. 육후이는 계몽주의 비판이 이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¹⁷ 여기서 '기관(organe/organ)'은 생물학적 장기에 국한되지 않고 도구, 기술적 장치, 제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이다. 스티글레르의 '일반 기관학(organologie générale)'에서 온 개념으로, 세 층위의 기관, 즉 생물학적 기관(내장 기관), 기술적 기관(도구·기계), 사회적 기관(제도·조직)이 상호 작용하며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룬다. '투쟁'은 이 세 층위 사이의 긴장과 조율 과정을 가리키며, 적응(adapt)과 채택(adopt) 사이의 변증법적 운동이다.

¹⁸ 네겐트로피는 슈뢰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생명체가 환경의 무질서(엔트로피) 증가에 대항하여 자기 조직화를 유지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육후이-스티글레르의 맥락에서는 기술을 통한 네겐트로피 생산이 인간 문명의 핵심이며, 산업이 엔트로피 가속(환경 파괴, 정신 건강 침식)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이 네겐트로피적 사명의 배반이다.

생산하려는 시도, 즉 우주적 생명의 엔트로피 과정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이다. 니콜라스 조르제스쿠-뢰겐(Nicholas Georgescu-Roegen)은 신고전파 경제 이론을 비판하면서 열역학에 기초한 생물경제학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인간은 네겐트로피를 생산하기 위해 외체적(exosomatic) 도구를 발명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산업은 엔트로피의 가속으로부터 이윤을 얻으며, 이는 환경 파괴와 정신 건강의 침식으로 이어진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젊은 사람들을 자사 제품에 중독시키려 했다는 최근의 법정 소송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바이럴 영상에 빠져드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주로 사용자 행동을 예측하고 결정하거나, 마케팅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될 때 인공적 우둔함(artificial stupidity)이 된다. 이러한 형태의 우둔함에는 기술적인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은 삶을 계산으로, 인간 의지를 패턴으로, 지식을 데이터로 환원하는 기술적 광신에서 태어난 도착(倒錯)이다. 그러나 인간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출구가 아닌데, 이는 주체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들 이후, 우리는 계산주의와 트랜스휴머니즘의 함정을 피하면서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한다.

이 경로를 찾기 위해, 인간은 첫째로 자신의 삶이 보철¹⁹(prosthesis)에 의해 가능해지는 기술적 존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보철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인간 세계에서 기술과 자연 사이의 고전적 대립을 다시 표면화시킨다.[주 10] 둘째로, 인간은 생성형 AI의 특수성에 적합하고 그것을 더 높은 목적으로 재방향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더 높은 목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¹⁹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보철은 의족, 의수, 치과 보철물 등 신체 결손을 보완하는 의료 장치를 일컫는다. 이 글에서의 보철은 기술철학, 특히 스티글레르 계보에서 prosthesis(보철/의지)는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결핍된 존재(스티글레르의 에피메테우스의 과실)이며, 이 결핍을 기술 예컨대 도구, 언어, 제도 등으로 보충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다. 즉 여기에서의 '보철'은 의료적 보조 장치가 아니라, 기술 일반을 가리키는 존재론적 개념이다. 스마트폰도, 언어도, 대학이라는 제도도 이 의미에서 '보철'이다.

인간 번영(**flourishing**) 개념인 '에우다이모니아(**eudaemonia**)'²⁰라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역량(**capability**)'²¹이라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주11] 내가 현재의 자동화 형태의 '특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형태를 17~18세기의 기계에 대한 고정관념과도,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제공한 범주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해진 실제의 기술적 현실을 인식하고, 알고리즘적 자동화의 진보와 한계 양자를 이해해야 한다.[주12]

이성의 교육이 이미 오늘날 매우 드물고 어려우므로, 그것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대학은 막스 베버가 묘사한 합리화 과정을 넘어서는 맹렬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주13] 우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실증주의와 기계론에 대한 투쟁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the spiritual**)은 자동화에 대립하지 않는다; 베르그손이 말하듯, 정신적인 것은 언제나 자동화에 의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비주의²²는 미신이 아니라, 지배적인 기술적 경향의 한계를—베르그손 시대의 기계론과 실증주의의

²⁰ 일반적으로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 정도로 축소 번역된다. 하지만 에우다이모니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단순한 쾌락적 행복(**hedonia**)이 아니라 덕(**areté**)의 실현을 통한 인간 번영(**flourishing**)이다.

²¹ '역량(**capability**)'은 일상적으로 '능력', '스킬',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이해된다.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서 **capability**는 개인의 능력(**ability**)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의 실질적 자유(**substantive freedom**)'를 뜻한다. 교육, 건강, 정치 참여 등이 포함되며, GDP 같은 총량 지표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인간 발전의 다차원적 조건이다. 육후이는 에우다이모니아와 역량이라는 두 개념을 AI 시대에 기술이 지향해야 할 '더 높은 목적'으로 제시한다.

²²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초자연적 믿음, 오컬트, 미신. '신비주의적'이라 하면 '비과학적'이라는 부정적 함의가 강하다. 하지만 저자가 언급한 이 부분에서의 신비주의는 베르그손의 신비주의(**mysticism**)로 미신의 반대편에 있다. 기계론과 실증주의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부상하는 통찰, 즉 지배적 기술 경향의 한계를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는 능력을 뜻한다. 베르그손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열린 사회'의 동력은 바로 이 신비주의적 직관이다. 육후이가 '기계론은 신비주의를 의미해야 한다(**mechanism should mean mysticism**)'고 베르그손을 인용할 때, 이것은 기계가 발달할수록 그것을 넘어서는 정신적 통찰이 필요해진다는 뜻이지, 비합리로의 퇴행이 아니다.

한계든, 우리 시대의 계산주의와 트랜스휴머니즘의 한계든—볼 때 부상하는

통찰이다.[주14] 베르그손이 쓴 바와 같이:

*그러므로 단지 ... 신비적인 것이 기계적인 것을 소환한다고만 말하지 말자. 이제 더 커진
몸은 더 큰 영혼을 요청하며, 기계론은 신비주의를 의미해야 한다고 덧붙여야 한다.
기계화 과정의 기원은 실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신비적이다. 기계가 인류를 더욱
망으로 숙이게 한 그 기계가, 기계를 통해 똑바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비로소 기계는 그 진정한 소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며, 그 힘에 비례하는 봉사를
제공할 것이다.[주15]*

"저자에게 죽음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지식의 자동화는 새로운 학부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오늘날의 대학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칸트의
시대와 대조적으로, 오늘날 이 갈등은 디지털 낙관주의에 의해 동력을 얻은 산업화로부터
발원한다. 사업가²³들의 마법은 유혹적이지만, 하위 학부는 방어되어야 한다. 학부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이 갈등이 미래에 열려
있는 개체화(individuation)²⁴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주석

²³ 이 용어 역시 현대적 의미와 다른 맥락을 지닌다. 사업가란 오늘날 기업인, 경영자, 상인 등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하지만 글에서는 칸트가 이야기한 사업가, 즉 칸트가 상위 학부(신학·법학·의학)의 학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사업(Geschäft = 업무, 직무)'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학자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실용적 업무 집행자라는 이중적 위치를 풍자적으로 가리킨다. 오늘날의 '비즈니스맨'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²⁴ 개체화는 시몽동(Gilbert Simondon) 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개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되기(becoming)의 과정 속에 있으며, 전(前)개체적 실체로부터 긴장과 갈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개체화는 완결되지 않으며, 항상 잔여로서의 아직 개체화되지 않은 잠재적 에너지를 남긴다. 이 잔여가 다음 개체화를 가능하게 한다. 육후이가 '미래에 열린 개체화'라 할 때, 학부 갈등이라는 긴장이 제거되지 않고 지속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주체·제도의 형성이 계속 가능해진다는 시몽동적 의미이다.

- [주1]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주2] 리오타르는 이러한 경향을 1985년 퐁피두 센터 전시 "Les Immatériaux"에서 보다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 [주3] Alain Minc and Simon Nora, *L'informatisation de la société*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78). 영역: *The Computerization of Society* (MIT Press, 1980).
- [주4] Bernard Stiegler, *Technics and Time*, vol. 1, *The Fault of Epimetheus*, trans. Richard Beardsworth and George Colli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 [주5] "Nvidia CEO Jensen Huang Would Not Have Studied Computer Science Today If He Were a Student Today (sic). He Urges Mastering the Real World for the Next AI Wave," *Economic Times*, 2025년 7월 21일.
- [주6] Chris Anderson, "The End of Theory: The Data Deluge Makes the Scientific Method Obsolete," *Wired*, 2008년 6월 23일.
- [주7] Immanuel Kant,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 trans. Mary J. Gregor, in *Kant, Religion and Rational Theology*, ed. Allen W. Wood and George di Giovann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53.
- [주8] AI와 칸트의 관련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Yuk Hui, *Kant Machine: Critical Philosophy after AI* (Bloomsbury, 2026) 참조.
- [주9] James Duesterberg, "Silicon Valley's Favorite Doomsaying Philosopher," *New Yorker*, 2026년 2월 18일 참조.
- [주10] 시몽통에 따르면, 인간발생(anthropogenesis)은 자연—즉 우주적인 전(前)개체적 실재—에 의해 가능해지는 기관발생(organogenesis)을 통해 이루어진다.
- [주11] Martha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고(故) 베르나르 스티글레르는 이 프로젝트를 더 탐구하고자 했다.
- [주12] Yuk Hui, *Recursivity and Contingency* (Rowman and Littlefield, 2019) 참조. 이 책에서 나는 17세기의 기계론에서 20세기 사이버네틱스 그리고 그 너머에 이르는 기계의 철학적 역사를 개괄한다.
- [주13] 『순수이성비판』의 끝부분에서 칸트는 수학은 배울 수 있지만 철학은 (역사적 방식 외에는) 배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오직 '철학함'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Immanuel Kant,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Werner S. Pluhar (Hackett, 1996), A837, B865.
- [주14] 베르그손의 신비주의와 기계론 이론에 대해서는 Yuk Hui, *Machine and Sovereign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4)의 6장 참조.

[주15] Henri Bergson, *The Two Sources of Morality and Religion*, trans. R. Ashley Audra and Cloudesley Brereton, with W. Horsfall Carter (Greenwood Press, 1935), 267.

요약 정리

I. 에세이 개요

육후이는 이 에세이에서 AI에 의한 지식 생산의 자동화 시대에 대학의 존재 이유와 한계를 칸트 철학,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 인식론, 베르그손의 생명철학, 시몽동-스티글레르의 기관학(organology) 전통을 교차시키며 탐구한다. 제목은 칸트의 「학부들의 갈등」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동시에 반향하며, 자동화된 지식이라는 조건 안에서 대학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선을 긋는다.

II. 세 개의 장(章)별 핵심 논점

1장: 반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1979)이 이미 예견한 지식 생산의 탈인간화가, 생성형 AI에 의해 급진화되고 있다. 반인간주의가 열어놓은 공터가 트랜스휴머니즘과 계산주의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이것들은 통제와 지배에 대한 잠재적 인간주의를 은폐한다. 육후이는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 개념을 통해 인간을 근본적으로 기술적 존재로 재정의하며, 인간화 과정 자체를 기관학적 투쟁(organological struggle)—도구를 신체에 통합하는 학습/교육 과정—으로 파악한다.

2장: 기관(器官)들의 갈등

AI에 맞춘 대학 재편과 인문학 폐기라는 두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쟈슨 황(코딩 불필요론)과 크리스 앤더슨(이론의 종언)의 담론을 징후로 읽으면서, 이것이 대학을 산업적 의제에 복속시키는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라고 진단한다. 칸트의 「학부들의 갈등」을 핵심 이론적 자원으로 동원하여, 대학의 근본 기능이 지식과 이성이 논쟁되는 장소이자 정신의 삶에의 참여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성에 대한 신앙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도덕적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피터 틸/알렉스 카프 류의 기술-민족주의적 '진보' 개념과 대립시킨다.

3장: 기계의 종언

미래에 AI가 지식 생산을 전담한다면, 인간에게 남는 지식은 '삶의 지식(knowledge of life)', 잘 살고 함께 잘 사는 법이다. 이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비판을 요구하며, 조르제스쿠-뢰겐의 열역학적 생물경제학과 연결된다. 인간의 번영(에우다이모니아)과 역량(capability) 개념을 더 높은 목적으로 제시하고, 베르그손의 신비주의-기계론 변증법으로 마무리한다. 기계론은 신비주의를 함축하며, 기계의 진정한 소명은 인류가 기계를 통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위 학부(철학)는 방어되어야 하지만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화시키기 위해서이며, 이 갈등이 미래에 열린 개체화(individuation)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III. 핵심 개념 지도

기관학적 투쟁(organological struggle): 도구를 인간 신체에 통합하는 학습 과정으로서의 인간화(hominization). 베르그손-시몽동-스티글레르 계보.

학부 갈등의 재연출: 칸트의 상위 학부(신학·법학·의학) vs 하위 학부(철학) 구도를 AI 시대로 전치. 트랜스휴머니즘적 약속이 상위 학부의 '마법'에 해당.

이성에 대한 신앙: AI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 이성의 한계 인정 + 도덕적 진보 추구.

삶의 지식(knowledge of life): AI에 의해 자동화될 수 없는 에우다이모니아적 지식. 계산적 지식의 대립항.

에우다이모니아: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보통 '행복'이라고 번역되지만 그저, 잠깐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상태를 뜻한다. 즉, 행복을 감정이 아니라 의미·덕·실천이 어우러진 좋은 삶의 방식으로 보는 개념이다.

네겐트로피 vs 엔트로피: 기술은 엔트로피에 대한 저항(네겐트로피)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산업은 엔트로피 가속에서 이윤을 창출.

개체화(individuation): 시몽동적 의미에서, 갈등을 통해 미래에 열린 형태로 지속되는 자기 형성 과정.

IV. 참조 사상가 계보

칸트 → 리오타르 → 베르그손 → 시몽동 → 스티글레르 → 누스바움/센 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계보가 에세이의 뼈대를 구성한다. 부차적으로 데카르트(근대적 주체의 명석판명

이상), 니체(허무주의), 맹크/노라(사회의 정보화), 조르제스쿠-뤼겐(열역학적 경제학), 막스 베버(합리화), 카를 슈미트(주권 개념)가 동원된다.